

# 이수화학, TDM 사업 “짹짹하다!”

중국·아시아 수요증가로 2000톤 증설 ... 6년만에 매출 100억원 돌파

세계 4대 LAB 메이커인 이수화학이 폐기물을 이용해 자체 개발·생산하고 있는 TDM(Tertiary Dodecyl Mercaptan) 매출에서 2003년 처음으로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TDM은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등 고분자 물질의 합성과정에서 분자량을 조정하는 중합조정제로 국내에서는 이수화학이 처음으로 1997년 자체기술을 개발해 수입을 대체했다.

TDM 생산량의 약 50%를 수출하고 있는 이수화학은 최근 중국의 합성수지 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2002년보다 수출량이 약 25% 늘어났으며,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이후 하반기 들어 국내 석유화학업종이 조금씩 호전을 보이면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와 SBR 등 합성고무 생산이 늘어나 TDM 수요 또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2003년 5월 TDM 생산능력 4000톤의 일본 Thio Chem이 원료 수급 불안정 및 가격경쟁 심화 등을 이유로 생산을 중단하면서 부수효과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TDM은 환경규제물질인 황화수소를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주 원료인 Ppropylene Tetramer의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점 때문에 신규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다.

이수화학이 1997년 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TDM은 주생산품인 LAB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황화수소 가스를 이용한 제품으로 기존에는 폐기처리하던 황화수소를 2년여 동안의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했으며 지속적인 품질개선을 통해 현재는 Phillips, Atofina에 이어 3번째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에 따라 이수화학은 2003년 8월 설비투자를 통해 생산능력을 6000톤에서 8000톤으로 증설하고 수요 신장에 대비하고 있으며 수출물량도 2004년에는 전년 대비 약 7% 정도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화학 윤신박 사장은 “TDM의 매출규모는 기존 제품보다 적은 한해 100억원 정도이지만 기존에 폐기됐던 부산물을 새로운 수익원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합성화학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계 TDM 수요는 약 4만5000톤으로 유럽, 미국, 아시아 수요가 각각 1만5000톤 정도이나 중국이 2006년까지 ABS를 200만톤 이상 증설할 계획이어서 아시아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11>